



즉시 배포용: 2020년 6월 17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CUOMO 주지사, 준틴스 데이를 주 공무원의 휴일로 인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행

주지사, 준틴스 데이를 공식 주 휴일로 만들기 위한 법안을 추진할 예정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국 전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공식 해방을 인식하여, 준틴스(Juneteenth) 데이를 주 공무원을 위한 휴일로 인정하는 [행정명령\(Executive Order\)](#)을 발표했습니다. 또한 주지사는 내년 준틴스 데이를 공식 주 휴일로 만들기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.

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"금요일은 준틴스 데이로, 미국 노예 제도의 종말을 기념하는 날이며 역사상 최근에 특히 관련되어 있습니다. 노예 제도는 150년 전에 끝났지만, 이 주와 나라에는 여전히 만연하고 체계적인 차별과 불의가 있었으며,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개혁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는 준틴스 데이를 주 공무원을 위한 휴일로 인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행할 예정이며, 내년에 법안을 공식 주 휴일로 제안하여 뉴욕 주민들이 이 날을 사용하여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"

Alicia Hyndma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"..평화가 왔을 때 그들은 노예들에게 해방법(Emancipation law)을 읽어주었고, 그들은 그날 밤 노래하고 소외치며 보냈습니다.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." - 전 노예 Pierce Harper, 텍사스의 1937 공공사업 진흥국(WPA) 노예 이야기(Slave Narratives)에서, 자유를 얻은 2년 반 후 그가 뉴욕 텍사스에서 자유라는 사실을 들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흑인 해방의 날(Black Emancipation Day), 준틴스 데이로 알려진 1865년 6월 19일은 미국 내 흑인의 기쁨, 회중, 영적 건강에 중요합니다. 준틴스 데이를 뉴욕주 내 휴일로 확정하기 위해 한 일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 저는 제 동료들 및 주지사와 함께 흑인 역사와 해방이 진보의 최전선에 머무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"

준틴스 데이는 1863년 1월 1일에 발효된 Abraham Lincoln 대통령의 해방 선언(Emancipation Proclamation) 소식이 2년 이상 지난 1865년 6월 19일에 텍사스에 도착한 것을 기념합니다. 주 전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Gordon Granger 소장이 연방 군대와 깡버스턴에 도착하여 일반 명령(General Order) 3호를 읽어 남북 전쟁(Civil War)의 종결 및 모든 노예가 자유이며 주 전역의 노예 소유주 사이의 해방을 집행하기

위한 목적으로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자신들의 자유의 권리를 알게 되었습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